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5월 CPI 안도감에도, 전쟁 불확실성, AI 산업 불안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일(수) 미국 증시는 5월 CPI 컨센서스 부합 소식에도, 트럼프의 추가 타격 경고 발언에 따른 유가 급등,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지분담보 대출 협상 교착 등 전쟁 및 AI 산업 불안이 재차 부각된 여파로 하락 마감(다우 -1.9%, S&P500 -1.6%, 나스닥 -2.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6%).

5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각각 4.2%(YoY vs 컨센 4.2% vs 4월 3.8%), 2.9%(YoY vs 컨센 2.9% vs 4월 2.8%)로 전달보다는 높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한 점은 안도 요인.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직결된 슈퍼코어 CPI의 전월비(MoM) 상승률이 둔화된 점도 중립 이상의 결과였음(4월 +0.45% → 5월 +0.27%). 예측력이 높은 클리블랜드 연은의 Inflation Nowcasting 모델 상 7월 발표되는 6월 헤드라인 CPI 예상치가 4.05%(Vs 5월 4.2%)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제한될 것임을 시사.

물론 Fed Watch상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인상 확률 42.5% vs 인하 확률 32.7%)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전일 미국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차주 6월 FOMC 대기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FOMC이기에, 점도표 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인 후 전망 수정을 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유가가 다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증시 불안을 초래하는 중임. 하지만 미 국방장관이 발표했듯이, 협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면 확전에 따른 유가 재폭등” 시나리오보다는 “양국 국지전 후 협상 및 수습”의 시나리오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직전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미 5월 CPI 경계감, 미국 일부지역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단 우려 등으로 폭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낙폭을 일부 만회(코스피 -4.5%, 코스닥 -1.7%).

금일에는 미국 5월 CPI 안도감에도,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 소프트뱅크발 약재에 따른 반도체주 약세,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하락 출발할 전망. 또 장 마감 후 오라클이 클라우드 사업 호조(YoY, 47%)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EPS 2.11달러 vs 컨센 1.96달러) 및 가이던스(차분기 EPS 1.74달러 VS 컨센 1.69달러)를 상향했으나, 400억달러 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시간외 6%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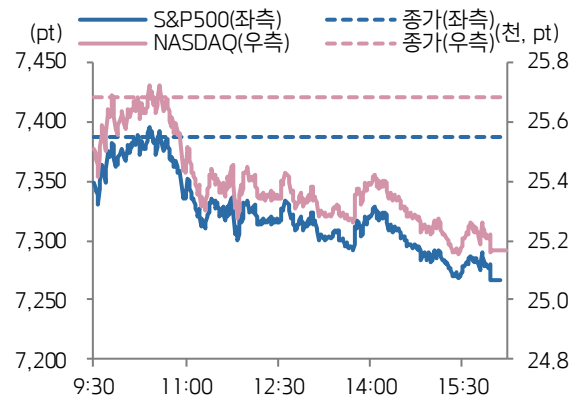
다만,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지분담보대출 협상 교착 소식은 전일 국내 증시 오후에 선반영된 재료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비상장회사인 오픈 AI의 담보 가치 평가 난항에서 비롯된 자금 조달 구조의 문제이지, 오픈 AI발 AI 실수요 둔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금일 국내 반도체 등 AI 관련주들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다고 판단.

한편, 전일에도 코스피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또 한 차례 급락을 맞은 상태. 6월 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매도 3회, 매수 1회)가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진 실정. 금일에는 5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

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후 처음 치르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에, 장중 현선물 수급 변화가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 전반의 시세를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 12일(금) 상장 예정된 스페이스 X를 편입하기 위한 글로벌 기관들의 자금 수요 또한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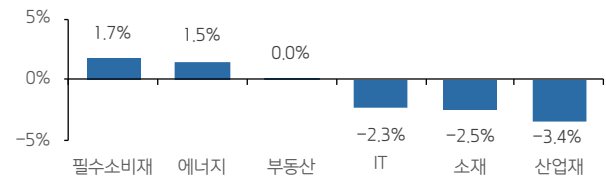
이처럼 6월 이후 빈번한 주가 조정과 변동성 증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대응 난이도를 역대급으로 높이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펀더멘털(이익 피크아웃, 수요 부진발 AI 투자 중단, 밸류에이션 부담 등)발 약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ETF발 수급 혼란과 증시 과속의 후유증이 만들어낸 단기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 따라서 주식을 들고 가는 자체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펀더멘털 악화 신호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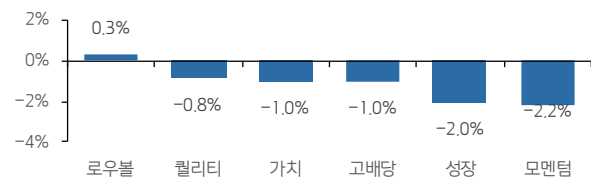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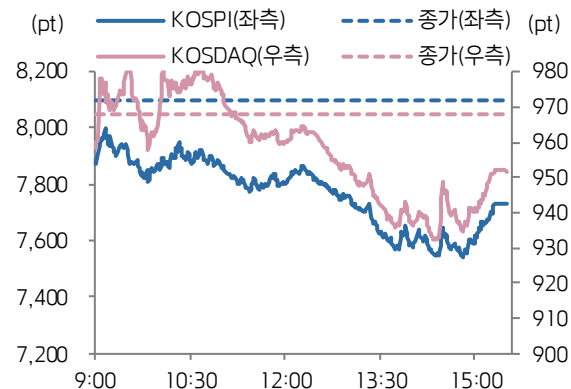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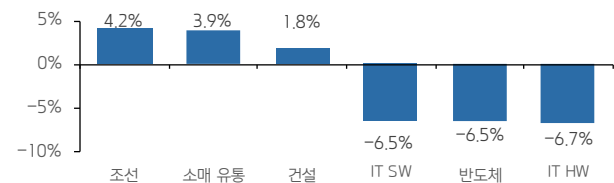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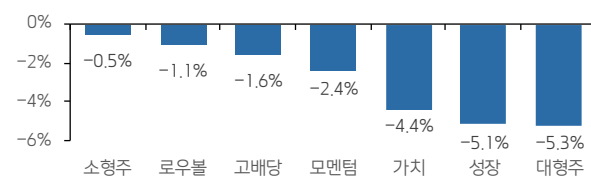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1.58	+0.35%	+7.25%	GM	79.40	-5.21%	-2.36%
마이크로소프트	397.36	-1.5%	-17.84%	일라이릴리	1,136.37	-0.73%	+5.74%
알파벳	356.38	-2.16%	+13.86%	월마트	120.59	+1.44%	+8.24%
메타	570.98	-2.33%	-13.5%	JP모건	309.14	-1.14%	-4.06%
아마존	238.00	-2.53%	+3.11%	엑손모빌	150.62	+1.15%	+25.16%
테슬라	381.59	-3.8%	-15.15%	세브론	189.80	+1.63%	+24.53%
엔비디아	200.42	-3.73%	+7.46%	제너럴일렉트릭	120.59	+1.4%	+8.2%
브로드컴	372.10	-5.12%	+7.51%	캐터필러	856.16	-6.4%	+49.45%
AMD	452.40	-4.86%	+111.24%	보잉	209.00	-2.57%	-3.74%
마이크론	891.88	-4.7%	+212.49%	넥스트에라	85.12	+0.3%	+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730.82	-4.52%	+83.45%	USD/KRW	1,520.20	-0.82%	+5.61%	
코스피200	1,227.12	-5.12%	+102.5%	달러 지수	100.03	+0.12%	+1.74%	
코스닥	951.63	-1.67%	+2.83%	EUR/USD	1.15	-0.07%	-1.8%	
코스닥150	1,671.02	-1.42%	+7.99%	USD/CNH	6.78	+0.05%	-2.77%	
S&P500	7,266.99	-1.62%	+6.16%	USD/JPY	160.55	+0.12%	+2.45%	
NASDAQ	25,169.50	-1.98%	+8.2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918.78	-1.87%	+3.86%	국고채 3년	3.877	+1.7bp	+92.6bp	
VIX	22.22	+11.83%	+48.63%	국고채 10년	4.265	-0.7bp	+88bp	
러셀2000	2,835.46	-1.1%	+14.25%	미국 국채 2년	4.143	+2.5bp	+67bp	
필라. 반도체	12,206.46	-3.57%	+72.33%	미국 국채 10년	4.552	+3.6bp	+38.5bp	
다우 운송	21,822.55	-2.69%	+25.73%	미국 국채 30년	5.029	+3.3bp	+18.6bp	
상해종합	3,993.23	-0.42%	+0.61%	독일 국채 10년	3.076	+3.3bp	+22.1bp	
항생 H	8,318.73	-0.07%	-6.6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3,983.18	+0.09%	-13.19%	WTI	90.03	+2.07%	+57.8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3.10	+1.8%	+53%
Eurostoxx50		6,009.95	-0.66%	+3.77%	금	4,133.30	-3.57%	-6.92%
MSCI 전세계 지수		1,086.98	-1.49%	+7.13%	은	64.74	-0.77%	-8.3%
MSCI DM 지수		4,683.03	-1.33%	+5.7%	구리	626.70	-0.87%	+10.3%
MSCI EM 지수		1,666.97	-2.62%	+18.7%	BDI	2,818.00	-3.36%	+50.13%
MSCI 한국 ETF		178.45	-3.04%	+83.55%	옥수수	446.75	+0.34%	-2.9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7.50	+0.38%	+10.59%
비트코인		61,741.58	-0.6%	-29.56%	대두	1,138.50	+0.57%	+6.95%
이더리움		1,629.12	-1.84%	-45.29%	커피	244.60	+1.54%	-23.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